

# 대한민국 새 브랜드 'CREATIVE KOREA'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가 탄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에 담긴 핵심 가치를 활용해 도출된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를 발표했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이날 "Creative Korea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나갈 미래 지향적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고 있다"며 "특히 한국인의 DNA에 내재한 '창의' 가치를 재발견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브랜드 사업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브랜드를 만들어 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브랜드·광고홍보 분야의 학계와 현장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단장 장동원 교수)을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DNA를 찾

##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 담긴 핵심가치 활용에 도출

습니다. 대한민국(KOREA)'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아이디어와 작품을 공모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국가이미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만999건의 공모 작품과 약 127만 건의 '한국다움'에 대한 낱말(외국 2만 4605건 포함)을 수집,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로 창의(Creativity)·열정(Passion)·화합(Harmony)을 도출했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Creative Korea'로 결정했다.

김종덕 장관은 "한국인의 '열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면 '창의'는 시대적 도전과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를 한 단계 향상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국가브랜드 로고는 태극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CREATIVE'와 'KOREA'를

상하로 두고 건곤감리의 두 개의 세로 선을 양 끝에 배치했다. 이를 통해 'CREATIVE'와 'KOREA'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이미지·단어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색상은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짙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사용했다.

문체부는 국가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소재로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홍보영상은 '대조적 매력(Exciting Contrast)'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힘, 대조적인 매력을 부각해 'Creative Korea'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홍보영상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프로기사 이세돌 9단, 피아니스트 조성진, 남성 그룹 '빅뱅', 서도호 작가 등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CNN, BBC 등 외국 매체에 이

영상을 방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공관과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코트라, 이리왕TV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인다.

올해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비롯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서도 'Creative Korea'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한 달간 서울스퀘어에서 'Creative Korea' 로고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인다.

김종덕 장관은 "작년에 국민과 함께 '한국다움' 찾기로 시작한 국가브랜드 사업의 결실로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국가브랜드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향상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합동공연 12일 소리문화의전당서

전주시립합창단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시립교향악단과 합동공연을 펼친다.

'베르디의 레퀴엠'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김철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며, 솔리스트로는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박현주,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이정원, 베이스 최진하이 출연한다. 이와 함께 국립합창단과 춘천시립합창단이 초청돼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레퀴엠은 오페라 작곡가 거장의 작품인 만큼 기존의 종교 음악적 레퀴엠과는 색채가 다르다.

제1곡(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2곡(속송), 제3곡(봉헌송), 제4곡(거룩하시다), 제5곡(하느님의 어리양), 제6곡(영원한 빛), 제7곡(저를 구원하시고)로 구성된 이 곡은 외형상 카톨릭의 '진혼 미사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고 방대하다.

이는 종교 의식보다는 일반적인 연주회 형태로 널리 연주돼 '죽은 자를 위한 오페라'라고 불린다. 하지만 독창·중창·합창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이 작품에 포함된 여러 노래들은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섭리와 미주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절박한 호소를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웅장하면서도 강렬한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뤄 오페라적인 극적 효과를 창출해 낸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차분하고 경건해야 할 레퀴엠이라는 장르와는 맞지 않아 '성직자의 가운을 걸친 오페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입장권은 S석 7천원, A석 5천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합창단 227-6278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포복절도 창극보며 무더위 날리세요

### 군산예술의전당, 16일 '배비장전' 공연

군산예술의전당은 국립창극단의 대표공연 '배비장전'을 오는 16일(토) 오후 3시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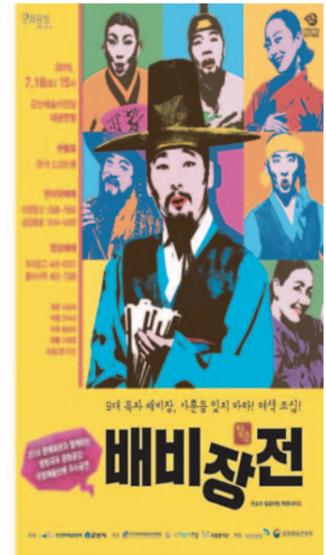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국립예술단체가 주관하는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 레퍼토리를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성과 예술성을 제고하여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립창극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 16개 국립예술단이 전국의 문예회관을 찾아가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국립창극단은 1962년 창작이래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창극을 선보이는 단체로 많은 애호층을 형성하고 있는 국립창극단의 전속예술단체이다.

김성녀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창극단 배비장전은 지난 6월 서울공연에서 100% 객석점유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관객과 배우가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품의 묘미를 연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배비장전은 9대독자이자 고고한 척 위상을 떨친 배비장이 기녀 애랑의 유혹에 분색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다룬 해학적인 작품으로 극의 핵심인물인 배비장과 애랑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와 이소연이 맡아 농익은 연기와 배역에 몰입해 펼치는 익살스러움을 기대할 수 있다. 조역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 또한 별미다. 이번공연은 전석 5000원으로 금강방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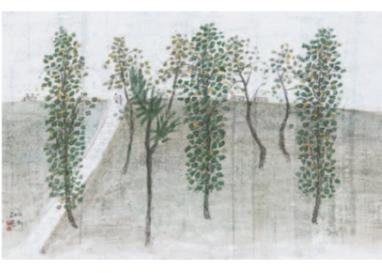


티케팅크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초청해 문화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도심의 여름



호수 언덕

## 시집 삽화같은 '나운희 개인전'

6일~11일까지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나운희 개인전 '항기가 있는 풍경 전-사계'가 6일부터 11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나운희 작가는 일상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종이와 붓과 먹 그리고 간단한 채색만으로 정갈하게 그려낸다.

작품에서 그녀는 가변적인 것들, 어쩌면 놓쳐버릴 수 있는 계절의 아름다움, 흥미로운 사물의 재미, 만물들의 활나를 단박에 채집해 절제된 울퉁과 은은한 색으로 묘사한다.

작품소재 역시 전주근교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그리 화려하지도 않은 도심 주변의 편안하고도 평범한 것들이어서 정겹게 다가온다. <도심의 여름>, <호수 언덕>, <지금

도 그곳에>, <사월의 노래>, <국경일 전-사계> 등의 작품은 특별한 꾸밈없이 솔직하게 매만지듯이 그려내 마치 무감각한 도시풍경에 감성을 부여한 듯 따뜻한 온기를 감동케 한다.

이들 작품은 마치 시집의 삽화처럼 담백하면서도 사색적이다.

그녀는 "자연이란 큰 공간에 우리 터전이 있고 그 속에 인간이 어우러져 자연과 한 덩어리로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게 세상이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작가의 작품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의 풍경을 고민하고 구상한 흔적이 묻어온다. /정해은 기자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5일>



### ▶쥐띠

46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은 부실하다. 60년생: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니 혼자서 힘들지만 이겨내야 한다. 72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4년생: 재물이 길성이 비추는 운이다.



###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운. 61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뒷 사람의 덕을 구하면 작은 것은 이룰 수 있겠다. 73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편안할 것이다. 85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때.



### ▶호랑이띠

50년생: 정성을 다해 해쳐나기면 태양이 뜰 것이다. 62년생: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지나친 추진은 실패를 부르는 법. 86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운이다.



### ▶용띠

52년생: 능력발휘가 잘 되는 운이다. 64년생: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들어왔다. 76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비단처럼 용기를 내봐라. 88년생: 처음에는 경쟁자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으니 매너를 갖춰 대하라.



### ▶뱀띠

53년생: 상한 일의 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65년생: 큰 재물은 얻기 힘들니 때를 기다려라. 77년생: 무실코 행동한 일에 구슬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89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생기는 운이다.



### ▶말띠

54년생: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숨어있는 격. 66년생: 소리는 크나 형체가 없으니 요란하지만 하고 실속이 없는 격이다. 78년생: 동기간과 불화가 예상되니 양보가 미덕이다. 90년생: 서로 통하지 않는다.



### ▶원숭이띠

56년생: 길성이 따르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68년생: 두 마리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갖고 다투는 격. 80년생: 등뒤는 어둡고 내가 향하는 방향은 밝다. 92년생: 무리한 활동으로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 ▶닭띠

57년생: 구슬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69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정이 강해지는 운이다. 81년생: 어려움이 있으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93년생: 좋지 않은 사람과 인연이 생겨 놀랄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



### ▶개띠

46년생: 무리한 추진은 삼가라. 58년생: 내부적으로 걱정할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라. 70년생: 호흡을 맞춰 같이할 일을 만한 사람은 구하기 어려우니 때를 기다려라. 82년생: 편법은 불리하다.



### ▶토끼띠

51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이다. 63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75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7년생: 구슬수가 따르는 운이다.



### ▶양띠

55년생: 여인으로 인해 구슬수가 발생한다. 67년생: 하늘과 땅이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합하기 어려우니 때를 기다려라. 79년생: 급하게 움직이면 얻지 못하니 경계민동을 삼가라. 91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뜻밖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의존하고 움직이면 고자 하는 일이 번창 할 것이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견언이설을 조심하라. 71년생: 귀인의 혜택으로 성공하나 말을 주고받음에 많은 말들은 삼가라. 83년생: 공동으로 움직이면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는 운이다.